



돼지띠 농구스타 LG 조성민의 '황금돼지꿈'



황금돼지해를 맞은 '돼지띠' 조성민의 올해 꿈은 프로 생애 첫 우승이다. 창원 LG에서 베테랑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조성민은 "황금돼지의 해인만큼 나에게도 복이 깃들었으면 한다"고 소박한 바람을 말했다. 사진제공 | KBL

“조선의 슈터 영광 되찾고 우승 도전”

‘조선의 슈터.’
창원 LG 슈터 조성민(35)을 일컫는 말이다. 오랜 기간 국가대표 슈터로 활약하면서 멋진 수석어가 그의 이름 앞에 붙었다. 국가대표팀의 슈터로 시원한 외곽슛을 터뜨린 ‘조선의 슈터’도 세월의 흐름 속에 어느덧 30대 중반의 베테랑이 됐고 국가대표 자리도 후배들에게 물려줬다.
우리나자로 서른여섯살인 조성민은 프로무대에서는 아직까지 우승경험이 없다.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정규리그 중반까지 잠잠했던 그는 2019년 들어 무섭게 3점슛을 폭발시키고 있다. ‘조선의 슈터’의 재림이다. 1983년생 돼지띠인 조성민은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 우승을 통해 농구인생의 황금기를 맞기를 기대하고 있다.

-황금돼지띠의 해인데, 연초에 운수를 본적이 있나?
“그런 걸 안보는 편이다. 그냥 황금돼지띠의 해라고 하나나 나에게도 복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12년 전 24살 돼지띠의 해를 기억한다면?
“아마 신인으로 첫 시즌(2006~2007시즌)을 소화한 시기로 기억한다. 그 때는 훈련하고 경기 일정 따라다니기 바빴던 것 같다. 꿈에서만 그리던 프로생활을 하게 됐으니 경기 일정 소화하는 것 자체에 마냥 즐거웠다.”
-사실 신인 때 조성민은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다. “드래프트에서 8순위로 뽑혔다. 당시 드래프트 동기 중에서 나랑 이현민(KCC)만 남았다. 그 때는 오랫동안 농구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냥 역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일단 그 꿈은 아주 제대로 이뤄졌다.
“하하, 맞다.”
-신인 때는 슈터가 아니었다.
“그렇다. 상대 스윙맨을 수비하고 속공에 가담하는 역할이었다. 당시 KTF(현 KT) 감독이었던 추일승 감독님이 악착같이 수비하는 모습을 보고 뭘 기회를 많이 주셨다.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양)동근이 형의 득점을 즐기는 수비 역할을 했다.”

12년 전 돼지해에 데뷔...그때 마냥 즐거워 신인 첫 해 챔피언...양동근 형 막기 바빴죠
우승하고 싶은데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어가 올 시즌 지금도 늦지 않아...팀 경기력도 굵
12년 후? 농구 발전에 힘 되는 사람 됐으면



-슈터로 자리 잡은 것은 상무(국군체육부대) 제대 이후다.
“제대했을 때 전장진 감독님이 KT 감독으로 계셨다. 그 때 모션 오픈스를 배우면서 농구가 늘었다. 5명이 전부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었다. 전 감독님이 스윙맨들의 슈팅 훈련을 위해 만드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엄청 힘들다. 그 연습이 지속되면서 슈팅에 자신감이 생겼다.”
-24살 돼지띠의 해와 36살의 돼지띠의 해를 맞이 사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대표팀에서의 경기가 기억에 남는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이랑 그해 여름에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은 잊을 수가 없다. 그 때 농구장을 찾은 팬들이 엄청 많았다.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 모두가 신나서 뛰었던 것 같다. 경기 이외의 부분에서는 딸이 태어난 것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
-아빠가 된 이후 생각이 달라졌나?
“지금도 그렇지만, 늘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나서니까 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다.”
-2, 3년 전부터 ‘조성민이 노쇠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떤 심경인가?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몸 관리를 더 잘해왔다. 농구가 잘 안되니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도 경험이고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견뎠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것을

느꼈다. 그래도 아직은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에서는 아직 우승 경험이 없다. 신인 첫 해 챔피언결정전을 갔으니 또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KT에 있을 때 우승 전력의 멤버 구성을 갖춘 시즌은 없었지만 플레이오프(PO)는 매년 나갔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4, 5시즌 동안 PO를 못가고 있다. PO 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 지금 우리 팀이 PO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매 경기 승패에 따라 순위가 바뀐다. 연승을 하면 단숨에 순위가 올라가지만, 연패하면 바로 하위권으로 떨어진다. PO 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
-전성기 기량을 유지할 때 우승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올 시즌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아쉽다. 지난 시즌도 아쉬웠다. LG 이적 후에는 늘 좋은 선수 구성이었으니까... 우승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간다. 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팀 전력이라면 강팀들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기력이 좋아진 이유가 있을까?
“선수들이 서로 커버를 잘 해준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코칭스태프도 준비하고 고민하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경기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빅맨들이 스크린도 많이 서주니까 자연스럽게 찬수도 많이 난다. 내가 기량이 나아질 나이는 아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컨디션과 감각을 잘 유지해야 할 것 같다. 아까 말했듯이 황금돼지의 해가 아닌가. 복 좀 많이 받아서 우승했으면 좋겠다.”
-12년 후 돼지띠의 해가 돌아올 때 47살의 조성민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글쎄, 너무 먼 이야기라... 그 때에도 농구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농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사람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를 바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사자성어로 본 2019 KBO리그 10개 구단

2019시즌을 향한 KBO리그 10개 구단의 도전이 본격화됐다. 설 분위기도 잊은 채 스프링캠프에서 뜨거운 함성을 토해낼 그들의 목표는 저마다 디디고 있는 토대가 다르기에 약간씩은 차이가 난다.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고픈 의지만 큰 것은 같다. 10개 구단의 새 시즌 목표와 처지를 일상에 종중 접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점검해본다. 하위권으로 밀려졌던 팀들의 분발을 기원하며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정리한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심기일전 ●NC 다이노스=새 기분, 새 마음으로 명예회복에 도전한다. 창단 첫 최하위로 떨어진 지난해의 아픈 경험을 떨쳐버려야 한다. 때맞춰 창원NC파크라는 새 집도 마련했다. 초보 사령탑 이동욱 감독의 현장 리더십과 종종 비난을 샀던 프런트 리더십이 조화를 이뤄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고진감래 ●KT 위즈=2015년 1군 합류 이후 '막내의 설움'을 톡톡히 겪었다. 다행히 지난해 '슈퍼 루키' 강백호를 얻었고, 처음으로 최하위에서 벗어나는 개기도 올렸다. 인고의 세월을 지나 '막내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해태왕조'의 주역이었던 이강철 신임 감독의 내공을 주목해보자.

시종여일 ●LG 트윈스=2년 연속 '전강후약', 뒷심부족에 올랐다.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DTD의 저주' 같은 조종 섞인 수석어와는 이제 차별할 때도 됐다. 한여름에도 유광점퍼를 꺼내 입고 열렬히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144게임 페넌트레이스를 꾸준한 페이스로 달리는 지구력이 필요하다.

하대세월 ●롯데 자이언츠=한국시리즈 우승이 빛바랜 추억이 된지 오래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정도로 지나간 기다림에 이제 팬들도 지치고 지루해진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시리즈 진출마저 어느덧 20년 전의 기억이 됐다. 14년 만에 다시 고향팀 지휘봉을 잡은 양상문 감독의 어깨가 무겁다.

삼전사기 ●삼성 라이온즈=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한국시리즈 통합 4연패를 이룬 명문답지 않게 지난 3년 추락을 경험했다. 더 길어지면 '암흑기'라는 평가에 가까워진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가을야구에 바짝 다가섰다. '푸른 피'의 직통을 물려받은 김한수 감독의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는 일어서야 한다.

유구무언 ●KIA 타이거즈=지난 시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적을 냈다. 디펜딩 챔피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갑고를 잡지 못했다. 5위로 가을야구에 턱걸이하고도 팬들의 비난이 빗발쳤던 근본 이유다. 투수진에서 유독 말쑥이 잦았다. 올해는 말이 필요 없다. 2017년의 기세를 되살려야 한다.

신장개업 ●키움 히어로즈=구단 소유주가 욕고를 치르고 선수단 내에서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2018년을 마치고 메인 스폰서까지 바뀌었다. 지난 9년간의 벅센 시대를 마감하고 올해부터 키움으로 재출발한다. 가을야구까지 이어진 지난해 후반기의 돌풍을 올해도 살린다면 이번이 가능하다.

결초보은 ●한화 이글스=2007년을 끝으로 가을야구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채 최하위를 전전하던 '흑역사'를 지난해 극복했다. '보살'과도 같았던 한화 팬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다. 구단 역대 최다인 73만4110명의 홈 관중으로 화답했다. 그 성원에 '보은'하는 2019년이 되어야 한다.

와신상담 ●두산 베어스=지난해 2위와 14.5게임차의 완벽한 레이스로 정규 시즌 1위를 완성했을 때만 해도 한국시리즈 우승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우두(여차피 우승은 두산)'가 대세였다. 그러나 충격의 반전이 뒤따랐다. FA 시장에서 국가대표 안방마님도 잃었다. 이대로 물러설 곳이 아니다.

능소능대 ●SK 와이번스=올해 목표는 당연히 한국시리즈 2연패가 되어야 할 터. 트레이 힐만 전 감독과 함께한 2년 동안 '거포군단'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었다. 우승의 기운을 염경엽 신임 감독이 이어갈 수 있을까. 디테일에 능하고 기지가 뛰어난 새 사령탑의 스타일까지 주목한다면 금상첨화다.